

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평가하는 지혜로운 성도

성경말씀: 빌3:1-11

성도가 될 때 나타나는 변화: 책을 읽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 4:8은 위대한 구절이다.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주일, 마지막 예배, 우리 삶을 평가해 보는 시간
빌립보서 3장은 3부분으로 구성됨, 바울의 과거(1-11), 현재(12-16), 미래(17-21)
과거가 중요하다. 이것이 기초이다.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요약한다. < >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1-2)

성도가 되면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벧전5:8).

바울의 역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1), 이전에 쓴 것들, 알려준 것들 다시 반복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가? 개들, 악한 일꾼들, 할례자들(2), 이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 2장 오순절 그 이후로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기까지 약 10년 동안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만 선포되었다. 8장부터 사마리아, 사울의 핍박, 안디옥 등
베드로는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 성령 침례, 유대인들 소동, 11장에서 해명
이방인들 구원이 왜 문제? 유대인들만 선민, 개돼지 취급, 유대인이 되지 않고 구원받음, 경천동지 사건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고백함, 유대인들의 응답(행11:17-18)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행13-14장), 15장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행15:1).

예루살렘 회의 결론: 유대인들의 규약의 모든 관습, 규례 불필요, 베드로의 고백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행
15:8-11).

많은 유대인들 불만 표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사역 방해, 회심한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감, 유대주의자들: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자들, 갈라디아서에 강력하게 경고(갈1:8-9)
빌3:1-2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함,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개, 당시 개는 애완견이 아니다. 질병
- 악한 일꾼: '믿음 + 행위' (엡2:8-10, 딤후3:3-7), 저주받을 이단 신앙, 이단/사이비의 특징
- 할례자들: 포피를 베어내는 자들, 많은 유대인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 바울 아니다 단지 살을 베어내는 것이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골2:11).

참된 그리스도인

-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3),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영적 예배(말씀과 성령님), 요4:19-24
- 예수님을 기뻐한다: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한다. 유일한 대속 희생예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그분만 기뻐하고 자랑한다.
-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례도 있지만 여기의 육체는 세상의 자랑거리(학식, 재물, 명예 등)
- 바울의 예(4-6): 나도 자랑할 수 있다(4). 육체에 관한 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4). 개종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예가 아니다. 정통 유대인(5),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냐민 지파, 사울 왕, 그 뒤로 유다 왕국의 신실한 시민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하생, 가장 엄격한 파당 율법과의 관계: 의로운 자(6),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100%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교회와의 관계: 본인의 진리가 확실하므로 심지어 반대하는 자들 처단 예수님 따르는 자들 박해, 스테반 죽이는 일 동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데려다가 박해
- 결론: 유대인들의 종교적 스펙으로는 더 이상 완벽함을 찾을 수 없음, 이것이 바울의 과거 이처럼 육체를 통해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종교, 행위 의인이라고 한다. 마르틴 루터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천주교회의 틀 안에서 노력했으나 불가능

요한 웨슬레가 한 때 이런 사람이었다: 미국 선교 여행 등, 올더스게일에서 회심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되었다.

바울의 변화(7-11)

다소의 사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다(행9).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여 구원받음
이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때에 성도는 잃게 되는 것들이 있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1. 무엇을 잃는가?: 하나님 밖에서 자기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다 잃음
학자로서의 명성,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 유대인으로서의 자랑, 아마도 가족 관계
모두 중요한 것들, 그는 이런 것들을 주님의 보화와 비교하고는 그리스도를 위해 뚱으로 여겼다(8).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 직전에 멈춘다. 잃을 게 너무 많다.
구원 이후에 잘못된 관행을 깨지 못한다.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손실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나쁜 것들은 당연히 다 버렸다. 그런데 좋은 것들까
지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즉 구원을 얻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좋은 것들을 지켰다.

2. 무엇을 얻었는가? 한 마디로 그리스도를 얻음(8)
 - a. 그리스도를 아는 것(8),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위엄, 빼어남, 고상함, 존귀함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안다는 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영생은 이것이니..(요17:4), 개인적인 친밀함
 - b. 그리스도의 의(9), 성정의 구원은 의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므로, 의는 100% 옳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고 열정을 쏟았다. 인생의 자랑거리, 육체
자랑,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 칭의
전가 행위(imputation): 내 계좌로 넣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계좌로 들어옴
이전(9) 로마서 9-10장, 유대인들의 오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열시를 내어 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남
 - c. 그리스도와의 교제(10-11): 사람이 변화였다. 단순히 육신과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의 삶을 나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였다. 갈2:20,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부활의 권능이 넘치는 삶(10)
 - d. 심지어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된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 고통당하는 삶, 1세기 사람 중에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후11장을 보라).
 - e.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고후4:16-18).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4:4를 쓸 수 있었다.
 - f.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목표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고난과 핍박에도 동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빌2:5).

즉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

회계 보고를 생각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조용히 앉아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사람
영원한 것이 있고 잠시 있는 것이 있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히11:24-27)
바울은 영원한 것에 베풀었다. 얼마나 100% 그의 삶을, 나도 그리한다.
이제 다 확실히 평가해서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하고 2019로 넘어가자. 귀한 해가 될 것이다.